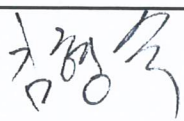



삼도2동 주민참여지역회의 회의록		간 사		위원장	
					
회의일시	2019. 4. 29. (월) 14:00		회의시간	14:00 ~ 15:00	
회의장소	삼도2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				
참 석 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30명 중 19명 참석 (고상호, 조매정, 권상은, 고배정, 양명자, 양귀룡, 송승보, 문석진, 고영희, 이정송, 고미영, 이해숙, 정산권, 현성희, 변경자, 김원보, 선희승, 홍형심, 송순철)				
회의안건	○ 부의안건 :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논의				
회의결과	○ 2020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사업 발굴 안건 논의				
회의 내용					
○ 김형숙 팀장 :안건은 2020년 삼도2동 주민참여예산 사업발굴 건입니다. 사업 발굴 기준은 지역주민 다수에게 골고루 수혜가 돌아가고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이며 일자리, 주민소득 창출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 사업 중 발굴기준에 부합한 사업으로, 5.31까지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4페이지 추진일정 및 5페이지의 2019년 선정사업을 참고 바랍니다.					
○ 김원보 위원 : 위원장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남원목사 재현행사는 어느 시기에 하고 있습니까?					
○ 고상호 위원장 : 남원은 특별한 달을 빼고 매주 토, 일요일에 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관아가 있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삼도2동이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목사재현행사에 대한 안건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놓을까 합니다. 따로 목사재현행사가 가능하면 축제 때 같이 접목시키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관련 예산으로는 편성이 불가함에 따라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 목사 재현행사라던가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 문석진 위원 :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목사재현 프로그램은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학교에다가 공모를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조매정 위원 : 저는 관덕정을 살리는 관점에서 생각해봤는데 목사선발대회나 기생선발대회를 열고,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참여 할 수 있도록 어린이 목사, 어린이 기생선발대회도 개최해 복장도 같이 살리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 내용

- 고상호 위원장 : 문석진 위원님이 의견을 받아들여 관내에 북초, 남초 어린이로 구성된 재현방법, 또 축제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같이 논의하면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조매정 위원 : 재현부분 중 목사가 배를 타고 왔으니, 탑동에 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 양귀룡 위원 : 배를 만드는 데에는 돈이 많이 필요하며, 또한 사후관리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 고상호 위원장 : 삼도2동에 목관아가 있으니 재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목사재현에 관한 고증 등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기획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신권 부위원장 : 목사재현행사는 주민참여예산의 기본사업과 우수사업 중 어느 부분인가요?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동네가 발전하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행사를 고정적으로 하는 것을 기본사업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심의를 통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상호 위원장 : 기본배정 사업에 관한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행사를 기본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다른 기본사업이 있으면 우수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 강선보 동장 : 그 부분은 공모가 끝난 후 같이 논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상호 위원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더 많은 주민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현수막을 추가로 달아주고,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홍보 및 대화를 통해 우리 동에 필요한 사업 안건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강선보 동장 : 사전검토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생각나시면 가능한 빨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형숙 팀장 :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